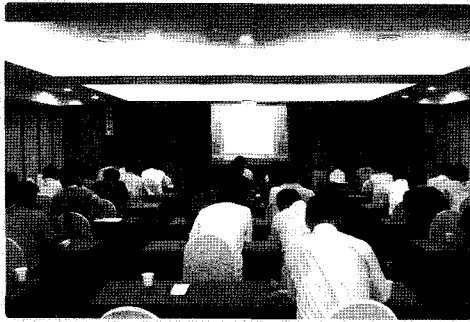


경농, 스마트프레쉬 처리기사 워크숍 개최



(주)경농(대표이사 이병만)은 지난 9월 15~16일 양일간 대전 유성 아드리아호텔 회의장에서 농산물의 맛과 신선도를 장기간 유지시켜주는 '스마트프레쉬' 처리기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점직원 50여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농산물별 저장관리 기술을 시작으로 올바른 스마트프레쉬 처리방법 및 실습, 제품 추가교육, 안전성교육, 효과검증방법과 생리적 저장장해 예방법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에 참가한 경농

임직원들은 스마트프레쉬 처리 후 사후관리 및 확실한 효과검증 그리고 보다 빠른 서비스로 신선도유지제품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갈 것을 결의 했다. 또한 신선도유지제품에 대한 강한 책임감과 더불어 우리 농산물의 가격경쟁력 향상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주)경농 '스마트프레쉬'는 지난 2005년 농촌진흥청 생장조정제로 등록돼 있으며, 현재 농약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효과 및 안전성을 관리하고 있는 국내유일의 신선도유지제품으로 에틸렌 가스를 제어함으로써 농산물의 노화를 방지한다.

또한 유럽연합(EU)의 무역환경기준을 통과해 현재 유럽연합의 ANNEX1 등록품목으로, 전 세계적으로 안전성을 입증받은 제품이다. 현재 국내를 포함 전세계 38개국에서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다.

「2011농약사용지침서」 검색 서비스 개편

한국작물보호협회(회장 한태원)는 농약안전사용기준수의 길잡이인 '2011농약사용지침서'를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www.koreacpa.org)내에서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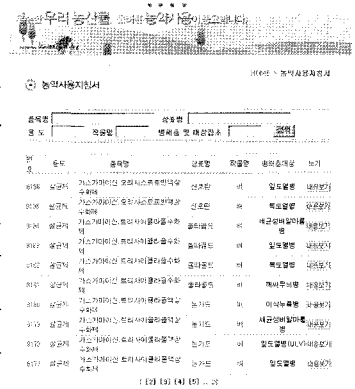
이번에 개편된 검색서비스는 용도별, 품목명, 상표명, 작물명, 병해충 및 대상잡초별로 검색란이 구분되어 있으며 통합검색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살균제, 고추, 탄저병의 검색어를 입력하면 해당 약제의 농약사용지침서 PDF파일이 나열된다.

또한 자료실에는 농업인이 병해충 및 저항성잡초를 쉽게 진단하고 방제할 수 있도록, 채소작물의 주요 병해충 및 제초제저항성잡초의 해당사진과 함께 해설이 나열되어 있는 일람 파일을 누구나 쉽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올려놓았다. 이외 협회 홈페이지내에는 농약도우미, 생활과농약, 정보광장, 중독증상과 치료법 등의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한국작물보호협회는 앞으로

도 농업인의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될수 있도록 새로운 영역 발굴에 끊임없이 노력을 할 것이다.



■ 성보화학, 환경 캠페인 실시

성보화학(대표이사 박종영)은 지난 9월 15일 경기도 고양시 공릉천변에서 환경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환경 캠페인에 참석한 성보화학 임직원 40여명은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나무와 잡초 등 수해 잔재를 및 생태교란식물 제거(단풍잎돼지풀), 쓰레기 제거작업 등을 하천 정화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우창명 공장장은 “더 나은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이지만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환경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보화학은 앞으로도 기존 농촌일손돕기 등의 봉사활동을 더욱 확대해 기업비전인 ‘고객과 함께 하는 녹색성장기업’에 맞춰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보건산업진흥원, 잔류농약 안전관리 국제심포지엄 개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은 지난 9월 20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식품 중 잔류농약 안전관리 국제조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지원으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국



가잔류농약 안전관리연구사업단 연구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심포지엄에서는 국제조화를 통한 잔류농약에 대한 합리적인 안전관리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한·중·일 식품분류 국제조화 및 식품 중 농약의 노출량 평가와 위해평가라는 두 가지 주제가 다뤄졌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에는 미국 환경보호청 및 독일연방위해평가연구소의 실무담당자가 참여해 각 국의 식

품 중 잔류농약에 대한 노출량 평가 및 위해평가 방안을 발표했으며, 중국 농업대학 및 일본 작물보호협회에서 중국 및 일본의 식품분류와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또 국가잔류농약 안전관리 연구사업단 연구진의 식품분류 체계 개선을 위한 활동 및 위해평가 방법과 관련된 연구내용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

이중근 국가잔류농약 안전관리연구사업단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식품 중 잔류농약 안전관리의 합리적인 국제조화 방안 마련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법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SG한국삼공, 논 유색벼 광고 시행



SG한국삼공(주)대표이사 한태원은 '광고 홍보용 벼는 식물 재배 방법'과 관련하여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과 '논 유색벼 광고 기술이전' 실시권을 계약하여 실시 지역과 연계한 회사 이미지 및 제품홍보를 위해 '농민사랑 SG 다카바-S' 등의 논 유색벼 광고를 전국 8개소에서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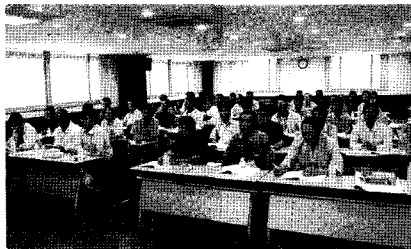
올해 논 유색벼 광고지역은 경기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700, 충남 당진군 우강면 성원리 239, 충남 서천군 화양면 창외리 352, 전북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560, 전남 함평군 엄다면 화양리 1095, 경북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 963, 경북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184, 경남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293번지에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오는 10월 24일에는 경기 이천시 유색벼 포장에서 SG한국삼공(주) 임직원 및 농업관련 관계자를 초청한 가운데 벼 베기 체험 행사를 가질 계획이며, 논 유색벼 광고 포장에서 수확 된 쌀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역사회에 기증하여 불우이웃과 독거노인 돕기 등의 활동을 지속시켜 나갈 계획으로 사회적 공헌에도 충실한 모습을 보이겠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2011농약안전사용 Master교육」 지속적 실시

한국작물보호협회(회장 한태원)는 「2011농약안전사용 Master교육」실시에 앞서 교육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전국 각지역의 작목반 및 연구회, 조합원,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등의 문의 및 신청이 쇄도하였다.

그만큼 농약안전사용 전문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이번 교육생 선발기준은 전국적으로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수 있도록 지역 및 재배 작물의 중복을 피하여 교육의 효과 증대에 중점을 두었다.

올해 총 5기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지난 8월 26일 제1기 경북 성주참외작목반 40명을 시작으로, 제2기는 9월 15일 경북 상주시 상주쌀연구회 회원 50명,



제3기는 9월 22일 경북 안동 한국사과협회 안동지회 회원 40명, 제4기는 9월 29일은 충북 충주시 북송아작목반 회원 40명을 대상으로 개최하였다. 마지막 제5기는 오는 10월 11일 경기도 안성시 서

운포도영농조합원 40명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에 있다.

끝으로 조성필 기획홍보이사는 "「2011농약안전사용 Master교육」은 국내의 최고의 강사진을 구성, 농약의 올바른 사용교육, 병해충 진단 및 방제, 방제기구의 올바른 살포요령, 작물별 재배기술 습득 등의 최적화된 전문교육이다"라며 교육 주관기관으로써의 강한 자부심을 밝혔다. ☺